

시동조차 못 건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

방대한 소송자료·역사적 기록물 보존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행안부 부지 마련 명목 모금 제동...시민모임, 광주시에 건립 제안서 나고야소송지원회 광주 방문 십사일반 모은 성금 1000만원 전달

일제 강제동원의 진실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달할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역사관) 건립이 아직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차원에서 부지마련 명목의 기부금 모금조차 할 수 없고, 역사관을 조성하더라도 유지·관리에는 지속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광주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20~30여년 전에 작성된 자료들이 많고 이미 변색되거나 보관 과정에서 일부 훼손됐으며 더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료를 돌려받으면 보관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작은 사무실에 보관하게 되는데 습도, 화재 등 안전 문제에 취약해 자료가 훼손되거나 망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관 건립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역사관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시민모금 등 민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 가깝기 때문이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상반기에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 모금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지 마련 명목의 기부금품 모집은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시민모임 소속 회원들이 역사관 건립을 위해 3000만원 가량 모았지만 이 금액으로 역사관 건립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시에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건립 필요성, 역사관의 의미와 기대효과, 부지 선정, 건축물 규모,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자료 목록 등이 담겼다.

역사관 건립 부지로는 2곳을 추천했다. 일제가 만든 지하 병커가 있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 일대와 일제 수탈 현장으로 알려진 광주시 북구 임동 전남 방직·일신방직 부지다.

시민모임이 제시한 역사관의 규모는 전시실과 다목적회의실, 수장고, 사무실 등을 포함한 연면적 826.4㎡ 크기의 건물이며 실외 공간에 주차장 및 야외 역사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제안을 받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역사관 건립에 대해서는 고민을 진척시켜 보겠다"면서 "한일 간 갈등이 계속되고 국가적 문제는 정부에서 하더라도 기념관 건립 문제는 광주시에서 행거 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역사관 건립에 기금을 전달한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소송지원회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금액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 취소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당사자 임에도 방관자처럼 보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나고야소송지원회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3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장기 파행운영 흥복학원 정상화 대책위 꾸려진다

학부모·시민단체 등 폭넓게 참여

학부모, 시민·교육 단체 등이 폭넓게 참가하는 흥복학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진다.

13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법인 흥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흥복학원 부채 등 현안 해결 방안 제시와 정상화 추진을 지원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대책위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당면적 6명, 위촉직 6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시의회, 교육청, 학부모·시민단체, 교육단체, 법조계 등 관련 주체들도 참여한다.

학교법인 흥복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처분, 회계 운영 부적정 등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임시이사가 선임돼 현재까지 운영을 맡고 있다.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학교법인 재산을 운영할 권한이 제한적이며, 기존 부채는 자연 이자로 인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부채 원금이 42억여원에 달하고, 이자를 포함하면 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흥복학원 설립자는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2013년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다.

시 교육청은 이날 중 외부위원 추천 의뢰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임기 2년의 대책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책위 구성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실질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술자리 폭행 말리지 않은 경찰관 감봉 처분은 정당

범인이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절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채승원)는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징계 취소소송에서 A경감의 징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여성이 폭행을 당했지만 제지·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해 1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A경감은 "가해자의 돌발적 행동으로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다. 피해자도 자신의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적절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술집 안팎 CCTV 영상에 따르면 A경감은 1차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이 가해자 B씨의 몸을 붙잡고 말리는 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던 점. 형사과 강력팀장인데도 무차별 폭행이 이뤄진 관내 현장에서 범죄·수습과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버지 불법도박 사이트 이어받아 1400억 빼돌린 딸

비트코인 거래가 조작 돈 쟁겨 광주경찰, 30대 여성 영장 신청

아버지가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어받아 1400억여원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을 빼돌리는데 가담한 A씨 언니(30대)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버지와 함께 태국 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녀는 태국에서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의 실시간 거래가의 평균치를 맞추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배팅한 이용자에게 수익을 배당하

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거래가 평균치를 인의로 조작해 마진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지인 명의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는 2019년 2월께 검거돼 국내로 압송·수감됐지만, 2020년 귀국한 A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지난해까지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가 아버지 대신 범죄수익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계좌에 수익금으

로 벌어들인 비트코인 1800여개(당시 기준 1430억원 상당)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죄 수익금 회수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환수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들이 암호화 되어 비밀 번호인 '프라이빗 키'를 알지 못해 수익회수에 난항을 겪었다.

이중 320개(25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최신 수사기법을 통해 환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700여개의 비트코인도 다른 가족이 빼돌린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비트코인 일부(50억원 상당)를 현금화해 생활비·아버지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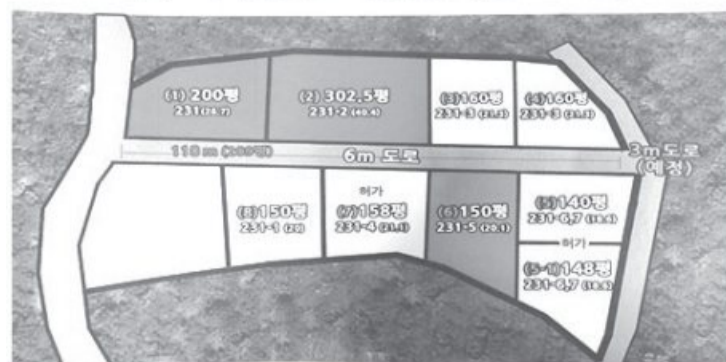
장성토지 매매 (분양)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기초반, 중급반]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 (축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7층 ▶ 감평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41평 ▶ 감평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암동 (아파트)복합블록 ▶ 감평가 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010-6670-9800

010-2614-9801